

“참다운 나 찾아 근면 수확하길”

울산 백양사 불교전법대학 3월 16일 개교식

신도 기본교육을 위한 울산 백양사(주지 목산) 불교전법대학이 3월 16일 첫 신입생들을 맞이했다. 백양사는 2012년 불교전법대학을 설립하여 불교전법대학을 개교하고자 했으나 중장불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가 연기됐었다.

미루어졌던 계획들은 작년 9월 백양사 신도 중심으로 불교대학설립 운영회가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불교전법대학 설립이 추진됐고, 주·야간 각각 55명, 총 110명의 인원을 확정함과 동시에 올해 2월 12일 오계종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정식 인가를 받아 조계종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백양사 신도들과 주지 목산 지은 스님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교대학 설립은 3월 16일 백양사 대웅보전에서 ‘불교전법대학 개교 대법회’를 봉행하며 공식적인 첫 걸음을 뒀다.

학장 목산 스님은 “불교대학 입학생 여러분, 부처님의 진리를 폭넓고 깊게 연구하는 구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학업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열력을 굳게 가지고 참다운 나를 찾는다는 자세로 근면 수확하는 학생이 되길 당부드립니다”며 인

사를 전했다. 또한, 목산 스님은 불교대학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포교를 잘 행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포교하는 사람과 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기본 교리부터 심화된 부분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정한 불자는 물론 많은 이들을 이끌어올 선도가 같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입재식에서는 신입생 선서, 교기

주·야간 110명 신입생 맞아 현판식·수계식도

전달 등 입학생들의 불교 수확 정진을 발원하는 식순이 진행됐으며, 백양사 주지 목산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을 비롯 한 정각준 국회의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등 10여명의 내빈들과 110명의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학장 목산 스님이 서원하셨던 큰 업을 이루셨다. 참 감사하고,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아는



울산 백양사 불교전법대학이 3월 16일 입학식을 갖고 첫 신입생들을 맞이했다.

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진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등 다양한 지식을 수확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불교전법대학 1기로 입학하게 된 이순형(60) 씨는 “백양사는 울산에서 중심이 되는 사찰이다. 백양사에 양한 지식을 수확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백양사는 이날 일주문에 새로 새겨진 ‘불교대학’ 현판 공개식을 거행했으며, 입학생들을 위한 수계식이 ‘불교전법대학 개교 대법회’에 앞서 봉행됐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학문적인 수확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며 불자로서의 바른 생활을 강조했다. 백양사 불교전법대학 과정은 1년 과정이며 매년 3월 개강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저항하지 않는 달팽이처럼 살아라”

3월 18일 정목 스님 동명대 특별강연

할랑네투 정목 스님이 3월 18일 부산 동명대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 마음을 다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목 스님은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유명 인사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괴로움을 호소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달팽이’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 삶의 지혜 5가지를 전했다.

첫째, 타인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달팽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빠르고 느림의 ‘속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달팽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인생 속도에 누가 이래라저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만의 삶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라.

둘째, 달팽이는 저항하지 않는다. 달팽이는 날카로운 칼날위에 올라



정목 스님 동명대 특강

놓아도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생물이다. 너무 느려서 칼날의 날카로운 윤과 투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평소 좋다, 싫다 수많은 판단분을 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맞서려고만 한다. 이별, 죽음 등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도 사실 삶의 필연이 아닌 한 부분이다. 옹기 얹은 것이 아니니 받아들여라.

셋째, 달팽이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달팽이는 눈이 없지만, 더듬이로 간다. 또한, 후진하지 못하는 생물이다. 여러분의 인생속도로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단지 달팽이처럼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넷째, 달팽이는 위험이 오면 숨을 줄 안다. 달팽이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딱 알맞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험이 앞에 나타나면, 숨어버린다. 위험이 나타났다고 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잘못되고 소심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나타나면 잠시 숨을 가다듬고, 시간의 흐름에 맡겨라.

다섯째, 달팽이는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달팽이를 여항에 넣으면, 물고기들이 쌓아놓은 오물들을 먹는다. 어떠한 것도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달팽이처럼 세상을 정화하는 방법은 바로 언어를 존경하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도 명달아 행복해질 것이다.

위 5가지 지혜 외에도, 정목 스님은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 애써 타인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로 강의의 마무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평생 모은 살림살이, 고서 구입에”

백운 스님, 고문서 124종 174권 범어사에 기증

백운 스님(미륵사 회주)이 3월 17일 고서 174권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은사인 백운 스님이 기증한 고문서들은 스님께서 평생 동안 모은 서적들로, 고려 후기부터 20세기까지의 고서들이다. 또한, 시대미상의 책들과 문화재급 가치로 추정되는 고서들이 상당수 존재해 향후 시문화재 지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는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경선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과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은사인인 백운 스님은 평생 동안 당신의 살림살이를 팔아 고문서를 직접 모으셨다. 후학들



백운 스님이 3월 17일 고서 174권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에게 수행정진과 경전연구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이 서적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하셨다. 또한, 백운 스님은 출가본사인 범어사를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다”고 전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잘 보관해서 후학들에게 백운 스님의 뜻을 더욱더 알리겠다. 평생 겸손하게 생활하시며 어렵게 모은 큰 스님의 고서들을 보니 숙연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고서들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정리 및 조사한 것으로 범어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백운 스님은 194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화엄사강원, 범어사강원 등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또한, 1954년 4월 봉암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 및 10하안거를 성만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극락사 해수관을 점안 및 해양교 낙성식



극락사 해수관을 점안식

경남 사천시 서포면 (사)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 극락사(주지 동진)는 3월 19일 해수관을 점안 및 해양교 낙성 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과 지역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지 동진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함께 극락사를 아껴왔다. 앞으로도 화합하는 극락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행상에 의지 하지 말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불보살님이 강림 하시어 광명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축사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공부하는 것이 은혜 갚는 도리”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

조계종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이 3월 14일 열렸다. 이번 입학식에는 원장 지안 스님, 주지 흥선 스님과 입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불전한문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오늘날 승단의 인적 수행교육 문제가 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시기에 불전한문승가대학원의 설립이

깊은 의미가 있다. 경전은 물론 동양문과 사상의 학문연구에 한문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승단의 현실에서 인격과 전문분야의 실력배양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은 “누군가에서 가야할 길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작은 출발이다. 열심히 공부하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입학식

는 것이 은혜를 갚는 도리임을 알아 최선을 다해 종단의 인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직지사를 공부하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부처님의 출가부터 열반까지’

통도사 3월 15일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 회향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 ‘출가에서 열반까지’가 3월 15일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기념법회는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8일부터 열반재일인 3월 15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법회로 첫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에 이어 지안 스님, 우진 스님 등 여러

대덕스님들이 부처님의 출가, 가르침, 열반 등의 주제로 설하는 법석이다. 또한, 기념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통도사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금강경 독송 및 108배 정진을 하며,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뜻을 기렸다.

통도사 울주 혜남 스님은 “열반은



통도사 출가열반재일 회향법회

죽음이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완결이다. 부처님의 죽음은 깨달음의 일체이다. 또한, 불자들은 용기와 지혜 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 등
할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림등(6cm) @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cm) @ 3,200원 (60개이상) • 바림등(10.5cm) @ 6,000원 (32개이상) • 바림등(13cm) @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cm) @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cm) @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cm) @ 3,600원 (60개이상) • 공단등(10.5cm) @ 7,000원 (32개이상) • 공단등(13cm) @ 15,000원 (12개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만월등A형(100개) 160,000원 • 비닐만월등B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비닐팔각만월등(100개) 22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 10.5cm(100개) 340,000원 • 비단접등 12cm(100개) 350,000원
--	---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cm / 25cm / 30cm | 50cm/1m / 2m

5줄이상 @ 65,000원 | 기타주문생선

<p>등철사 4종 (100개)</p> <p>6cm 75,000원</p> <p>8cm 80,000원</p> <p>10.5cm 85,000원</p>	<p>봉촉카드[21종]</p> <p>@ 300원(1,000장 이상)</p> <p>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p> <p>내지 : 18.5x25.6cm</p>	<p>LED전구</p> <p>100,000원(국산)</p> <p>1BOX : 50개 (0.87W)</p> <p>색상 : 옅분색/주광색</p>	<p>고추전구/대추전구</p> <p>25,000원/35,000원</p> <p>1BOX : 100개</p> <p>고추전구:10W / 대추전구:8W</p>
---	--	---	---

PVC등표 (100개)

내지 12,000원

집게 20,000원

크기: 8.5x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가다육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